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 발굴 착수

무주군, 내달 4일까지 지정 위한 신청서 접수... 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무주군이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 발굴에 들어갔다. 각 마을에 잠재되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해 마을의 자긍심과 문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에 따르면 다음달 4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신청서를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지정 대상은 국가·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무주군 지역내 소재한 비지정 문화재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안내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신청·접수해 육영재(무풍, 현종 15년(1849) 흥양 이씨 문중에서 자녀들을 인재로 길러 내기 위하여 건립한 교육기관)를 비롯해 유경계 효자각(무주읍 당산리, 고종 24년(1887년) 조정에서 정려하고 동몽교관으로 증직함), 삼공리 월음령계곡(실천면, 제철유적) 등 모두 10여개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한 바 있다.

군은 신청서와 구비된 자료들을 토대로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 등을 검토해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1차 신청서 서류심사 및 서면 검토 후 2차 무주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을 결정한다.

군은 최종 심의결과를 토대로 30일 간 지정 예고한 뒤 향토문화유산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안내관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훼손되지 않게 소유주와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은 향후 국가·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등



육영재.



향산사 나한전 16나한상.

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무주군 문화체육과나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문화유산을 보호

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기 위해 필요한 가교 역할"이라며 "무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우리음악·소리·춤' 한자리에

국립민속국악원·국립무형유산원, 26일 신년음악회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과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은 오는 26일 오후 5시, 국립무형유산원 알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신년음악회'를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과 더불어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보존회, 거문고 연주회 대가 김무길 명인 등이 출연해 우리음악과 소리, 춤이 어우러진 고품격 예술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백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처용무와 학연화대무를 시작으로 김무길 명인의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연주에 이어 참극단의 남도민요, 판굿 등 신명나는 공연으로 새해의 좋은 기운을 전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장이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인 왕기석 명창이 출연해 미산제 수궁가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한다.

그 외에도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이 남원의 명무 고(故) 조갑녀 선생의 혼을 기리는 조갑녀류 민살풀이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19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국립무형유산원(063-280-1500~1)으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출연 배우 모집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2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의 출연 배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2월 8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3일~8일까지 이메일(jctpr@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소리·무용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1년 이상 공연 활동 경력자(연 2회 이상)로, 공연 및 연습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 21명(소리 2명, 무용 1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소리 관련 학과는 국악과, 한국음악과 등 소리 전공이며, 무용 관련 학과는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포츠탄스, 태권도, 실용무용

등 무용 관련), 뮤지컬, 연극, 연기 전공자다.

심사는 1차 서류전형(적격 여부)과 2차 실기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2월 18일 발표한다.

특히, 실기 오디션에서 소리 분야는 자유곡(판소리 5바탕 중 자유 선택), 무용 분야는 창작무를 심사하고, 공통으로 특기(타악, 연기, 무용 등 자유 선택) 및 태도를 평가한다.

한편, '몽연·서동의 꽃'은 삼국 시대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 공주의 서동요를 바탕으로 만든 판소리댄스컬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2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 청년 전통문화 창업·시장 진출 돕는다

청년들의 전통문화 창업상품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2일 '2021 전통문화 청년창업 시상식'을 열어 청년 창업자들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창업초기기업이 새로운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담에는 유통·투자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

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초기기업 27곳과 신세계 디에프, 롯데하이마트, 우체국 소핑, 위메프 등 유통사 17곳, 투자기관 5곳이 참여해 상담 총 120건을 진행, 상담액 약 120억원을 달성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48곳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기업 7곳과 전통문화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50개팀에 상을

수여했다.

우수기업 중 전통 다과 제품을 만드는 '연경당'은 문체부 장관상을, 친환경 전통 선풍 제품을 만드는 '파운드코퍼레이션'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버려진 과일 등을 활용해 향 제품을 만드는 '벚부싸쿠이'는 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에서는 조선 후기와 개화기의 전통 복식 판매 아이디어를 제안한 '개화라사 정연재'가 대상과 함께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뉴시스

KTX 익산역에 보석박물관 탄생석 70여점 전시

익산시가 KTX 익산역에 보석박물관 탄생석 전시회를 개최한다. 14일부터 23일까지 익산역 2층 대합실에서 보석박물관의 12개월 탄생석 7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탄생석(誕生石, birthstone)은 여러 나라에서 사람이 태어난 달과 연관 지어 몸에 지니면 행운이 따른다고 여겨지는 보석을 말한다. 탄생석은 오랫동안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여겨져왔으며 각각의 탄생석에 의미가 붙여지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다양한 보석이 발견되었으나 춘천 옥과 연양 지수정 이외에는 질과 양에서 조금 부족하여, 실크로드 등을 경로로 귀족층으로 흡수되어 조금씩 입소문으로 알려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종류의 보석 또한 전 세계인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각 보석의 쓰임새나 희귀성에 따른 가치 평가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보석과 의미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